

■ 실속 재테크

주식연계 채권 투자법

신용도·주가 전망 고려해야 이자 수익에 시세 차익 매력

정모씨(43·광주시 남구 봉선동)는 최근 기아차 BW(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에 해 1개월만에 55%의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달 17일 우리투자증권 광주지점을 통해 청약받은 405만원 어치의 BW를 기아차 주식 588주로 전환해 지난 23일 증권시장에서 주당 1만700원에 내다 팔아 226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최근 '주식연계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BW와 CB(전환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정적인 이자 수익에 시세차익까지=BW와 CB는 일반 회사채의 일종이다. 회사채를 사면 투자자에게 특정 기간마다 이자만 지급되는 데 비해 BW와 CB는 이자 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돼 주식연계채권이라고도 부른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란 미리 정해진 값

으로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붙은 채권이다. BW와 비슷한 채권으로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가 있다.

CB는 발행 당시에는 채권 형태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즉 회사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예정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CB, BW에 투자하면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주식 전환 시점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신용도와 주가전망 고려해 투자해야=개인이 이들 채권에 투자하려면 발행 증권사 지점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 증거금(100%)을 납입하면 된다. 발행 정보는 신문이나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는 청약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기아

차 BW같이 개인과 기관 물량을 구분하는 청약 방식이 있고 대우 차관매 BW같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청약이 끝난 뒤 장내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채권도 일반 채권을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BW나 CB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이 표시돼 있으며 기업 부도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HMC투자증권 광주지점 위승환 지점장은 "BW, CB 투자 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라며 "각 회사의 부도 가능성과 채권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회사의 주가 전망을 고려해 주식 전환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동시에 따져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필수기자 bungle@kwangju.co.kr



“일자리 주세요” 28일 광주 동강대 체육관에서 열린 '기업은행 잡월드 로드쇼'에 참가한 20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부스를 찾아 채용 정보를 얻고 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우리로광통신 등 23개 지역 중소기업이 참가해 2천100여명의 구직자 중 31명을 현장에서 채용하고 86명은 재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여수 엑스포타운 부지 주공, 보상 업무 시작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여수엑스포 타운 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 지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 타운 내 엑스포 종사자 숙소와 차량주차 공간 등 37만9천267㎡로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보상지역에 대한 열람이 이뤄지고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주공은 또 열람 기간이 끝나면 5월 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주공 광주전남본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061-662-0530). /김지윤기자 dok2000@

금호타이어 전 사업장 내달 2~3일 생산중단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평택 등 전 사업장에서 다음달 2~3일 이틀간 타이어 생산을 중단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금호타이어의 생산중단은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5번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생산 중단은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계획을 효율화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비맥주 우선협상자 美사모펀드 KKR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가 오비맥주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사모펀드(PEF)인 폴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는 벨기에 국적의 AB인베브가 최대주주로 있는 오비맥주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KKR 대변인이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KKR 측은 오비맥주를 인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한국 시장 전망이 밝고, 오비맥주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KR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사모펀드다. 운용자산만 485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8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연간 수입이 2천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저신용·저소득층 생계비 2조9천억 대출

불법 대부업자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명과 저소득 20만 가구에 대해 총 2조9천억 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리 사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송을 지원한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 명에게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연 7~8%의 금리로 총 5천억 원을 대출해 주

게 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20만 가구에 보유 재산을 담보로 1조 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천만원이며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금리는 연 3%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 명에게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연 7~8%의 금리로 총 5천억 원을 대출해 주

게 했다. 경찰은 5월부터 조직폭력배의 불법 대부업이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이자의 변제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95개 건설·조선사 신용 재평가 착수

1차 평가 A~B 등급 기업...워크아웃 기업 나올 수도

채권은행들이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합격점인 A~B 등급을 받은 95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했다.

1차 평가 때 간신히 합격선을 넘긴 업체들은 지난해 실적 악화 여파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채권단과 업체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건설성 재평가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중순 이뤄진 1차 평가는 작년 9월 말 기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했지만 재평가는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1차 평가 때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9개 건설사와 16개 조선사 등 총 95개 기업이 재평가 대상이다. 이 중 채권은행들이 현재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는 45개 그룹의 계열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재평가 대상 기업들에 작년 말 기준 기업 재무제표와 합

계 자체 경영개선 노력 자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분기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1차 평가 때 가가스로 C등급을 면한 기업들이 재평가 때 C등급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재평가를 마친 뒤 다음 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차 평가 때 작년 4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돼지인플루엔자 여파 증시 급락

코스피 39P 떨어져...원·달러 환율은 상승

돼지인플루엔자의 감염 확산 우려와 미국 금융당국이 백트러딩(BOA)과 씨티그룹에 자본확충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9.59포인트(2.95%) 급락한 1,300.24로 장을 마쳐 간신히 1,30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6.60포인트(5.26%) 급락한 479.37에 마감, 수출세 하락하며 지난 22일 500선 위로 올라선 이후 5거래일만에 다시 500선 아래로 추락했다.

5거래일째 매수우위를 유지하던 외국인도 매도우위로 전환해 291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지수의 급락세를 이끌었다. 기관도 기금을 중심으로 939억원 어치를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1천923억원의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전기가스업(0.16%)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업(-3.86%), 유통업(-4.47%), 제약(-5.26%), 운수장(-3.81%) 업종의 하락폭이 컸다.

돼지인플루엔자(SI)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일부 바이오주와 돼지고기의 대체재로 꼽히는 마니커, 오양수산, 동원수산 등 닭고기주와 수산주가 일제히 상승가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3.4원 상승한 1,356.8원에 종료됐다. 지난 1일 1,379.50원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환율은 24일(-14.70원), 27일(-14.27원) 등 2영업일 연속 내렸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정필수기자 bungle@kwangju.co.kr

군인·입대 예정자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들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재대 후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역 군인이나 입대 예정자가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군 복무기간 중에는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말 확실하게 돈벌 기회!!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전문기업' 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회사소개

- ▶ 2005년도 설립
- ▶ 벤처기업 등록 (중소기업 적합기업 인증)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사업 선정)
- ▶ 지역생산량 대부분 확보 (수출제품 100대, 수출업체 100대)
- ▶ 과학기술 원(벤처투자 세)

사업성취회

- ▶ 시설 : 연평균 10% 이상 증가
- ▶ 매출 : 회사에 성장동력 제공
- ▶ 실적 : (2008년) 100% 달성

2008년부터 행정부서가 변경되면서 하수슬러지 중, 연소처리를 위한 슬러지, 합사는 개폐용역의 처리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